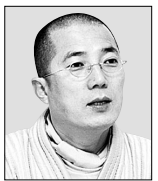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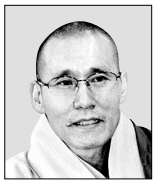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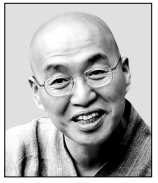
만불보전 부처님 조성 선사화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4월 14일 불광불교총합복지관에서 만불보전 부처님 조성을 위한 선사화전을 연다.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위촉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21일 서울경찰청 서경마루에서 열린 경승 위촉식에서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수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은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제6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제6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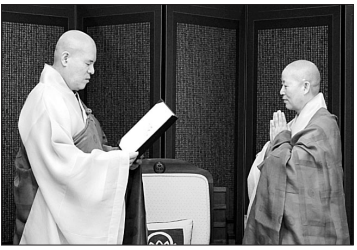


제26회 백고좌 대법회 회향식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25일 법왕사에서 前해인사 강주 무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제26회 백고좌 대법회 회향식을 연다.



중국 서안외사대학과 MOU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4월 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중국 서안의 사대학 황팅 이사장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재임명



서울 은평구 진관사 주지에 계호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일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지역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계호스님은 진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강원도 보광사 주지, 운문승가대학 강사, 전국비구니회 수석 운영위원장, 12~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청규제정위원, 조계종 표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조계종 환경위원, (사)진관사국행수륙재 보존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 대표이사,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인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정영훈 △문화재활용국 공능문화재과장 나명하 △현충사관리소장 최이태

“사찰 방화 대책, ‘점’ 아닌 ‘면’으로”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사찰 방화시스템 변화 촉구



3월 28일 삼랑성 산불 발생 대응 참여로 1시간만에 진화 “소방로 구축·간벌 등 필요해”

“3월 28일 오후 6시 20분 강화 삼랑성 일대에 산불이 났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전등사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를 통해 전등사가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전등사 방화 대책에 대한 전반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사진)은 4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은 무엇보다 국가 지정 사적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무신경한 정부와 지자체를 질타하며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진압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화재발생 당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탓에 전등사와 전등사 보유 문화재들이 모두 전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산불발생과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재청이나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삼랑성 화재는 3월 28일 오후 6시 20분경 발생했으나, 삼랑성 주 출입구인 남문이 낮아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일몰 이후 발생한 화재라보니 소방 헬리콥터가 1대밖에 동원되지 못해 ‘제2의 낙산사 화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주변에서 정기훈편을 하고 있던 길상이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신고로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범우 스님은 문화재 보존 정책이 단일 문화재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보유 사찰 방화 시스템도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화재가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진압된 것은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화마가 삼랑성을 타고 경내로 번질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전등사에는 국가 사적 1점, 보물 5점, 시지정 문화재 22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문화재 사찰 전등사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화 대책은 단순히 단일 문화재에 그치지 않고 사찰 전체적인 부분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범우 스님은 방화선 구축을 위한 간벌과 대형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삼랑성 주변의 우거진 잡목들이 외부 산불과 전등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등사를 둘러싼 삼랑성의 주변 나무들을 간벌해 10m 정도의 방화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등사에 진입하려면 삼랑성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높이가 낮아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삼랑성 남문계단을 정비해 대형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별도의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 종합적인 방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들, 탑골공원 어르신 배식 봉사



동국대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총동림동문회(회장 무문)는 4월 2일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점심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서 명예회장 학명 스님과 사무총장 지담 스님, 총무 지련 스님, 봉사단 20여명은 비빔밥을 250여명의 어르신에게 전했다. 무문 스님은 “총동림회가 뜻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배식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배식 봉사를 계기로 총동림회가 활성화 되고 더 많은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리불교조계종 입실전당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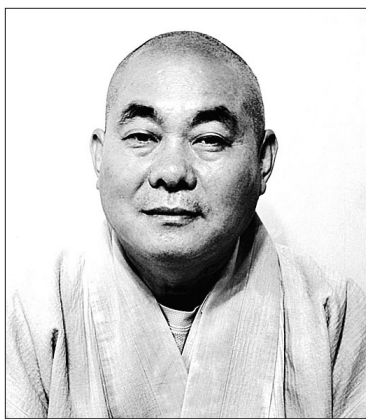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종정 홍산당 현불)은 3월 28일 종단 본산인 천안 광덕사에서 ‘입실전당 및 정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현불 스님을 대법사로 모시고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화엄 산림 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건당식에는 15명의 스님이 현불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받들어 수행 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활불교 실천하는 지혜의 장 되길”

세계황금탑 건립 위원장 덕산 스님



108m 황금탑... 수도권 건립 예정 13일 ‘가네시와르 스님 초청법회’도

미얀마 불교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경기도 용인 보문정사 국제여래선원(덕산 스님)이 가네시와르 스님(열반당 주지) 초청 법회를 시작으로 세계평화 황금탑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국-미얀마 친선 세계 황금탑 건립 위원장 덕산 스님은 4월 2일 간담회를 열고 세계평화 황금탑 건립의 의미와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한국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는 완성된 상태이며 한국에서도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황금탑건립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국의 웨다곤탑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좀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미얀마 네피도의 108m 황금탑을 모델로 했습니다.”

고문단으로는 미얀마불교협회 의장 바단파 꾸마라 비원파 스님, 쉼푸원 사찰 주지 바단파 띵다야 스님, 라이파나 사찰 주지 바단파 나라다 비원파 스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주지 가네시와르 스님이 선

임됐다. 현재 황금탑건립위원회는 용인, 이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지를 선정해 황금탑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생활불교가 널리 퍼져 있다보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원에 들러 예불 드리고, 또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예불을 드리

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당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황금탑은 명상관, 갤러리 등을 설립해 템플스테이를 겸하는 등 불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누구나 와서 불교 문화를 접하는 지혜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황금탑 건립의 목표이기도 하다.

“생활불교를 주창하는 미얀마 불교는 소액기부 불사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평생 탑을 건립하는데 자신의 월급을 기부하는 것을 원으로 삼는 것이 미얀마 불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액기부자가 많고 또 불사도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불사도 적당한 부지가 선정된다면 탑 건립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덕산 스님은 4월 13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보문정사 국제여래선원에서 ‘가네시와르 큰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국제여래선원은 1부에서는 108사순례단 회주 선묵 해자 스님이 참석해 ‘세계 평화의 불’ 분등 점안식을 갖고 2부에서는 초청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종단총연합회 · 금산인삼조합 MOU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4월 3일 하림각 연회장에서 실무의장 만주 스님을 대표로 금산인삼약초영농조합(조합장 서인준)과 상호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실무의장 만주 스님, 공동의장 문수 스님, 사무총장 설승 스님, 사서 실장 해안 스님과 영농조합 서인준 조합장 등 양측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종단총연합회는 향후 인삼차 문화축전과 시연회 개최, 인삼제품 공급 등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古佛叢林 白羊寺

鶴峯 知誥 大禪師 方丈 告佛法會

三寶님께 귀의합니다.

甲午年 새봄을 맞이하여 春白羊의 향기를 전해 드리오며, 대덕큰스님의 法體 康寧하심을 늘 기원 드립니다. 금번 白羊寺에서는 宗團 대덕큰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의 推戴에 힘입어, 학봉 지선 대선사를 古佛叢林 方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穀雨날에 즈음하여 四部大衆과 함께 告佛式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마음을 내시어 자리를 함께 빛내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佛紀2558(2014)年 4月 日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白羊寺 住持 眞愚 合掌

- 일 시 _ 불기2558(2014)년 4월 20일(일) 오후 2시
- 장 소 _ 고불총림백양사 대웅전 마당
- 문 의 _ 백양사 종무소 전화 061)392-7502

※ 오후 1시 30분 부터 식전행사로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